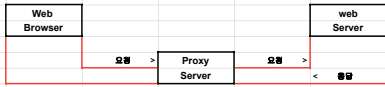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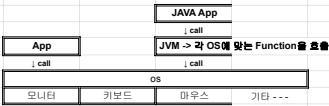
*Proxy 서버



1. 필터링 → 접근 제어
2. 로깅 (logging)
3. 캐싱(caching) → 임시 보관

자체 대기열이라는 배열이 있음.
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기열에 넣고 한개씩 한개씩 처리한다.
방식은 "큐(FIFO)" 방식
new ServerSocket(포트번호, 대기열크기)
대기열 => 50개 default
keyScan.nextLine(); 서버 대기열에서 대기
PID = 프로세스 id

Application은 결국 OS의
메서드 호출 →
↓
실행 시 OS의 영향을 받는다.



println ->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호출하는 것 :

```
ServerSocket ss = new ServerSocket(8888, 2);
z = 대기열의 숫자 설정하기
```

1) 소켓 생성
Socket socket = new Socket();

2) 연결할 서버의 주소를 준비
SocketAddress socketAddress = new InetSocketAddress("192.168.0.76", 8888);
> 추상클래스 레퍼런스는 추상클래스를 상속 받은 서브클래스의 객체 주소를 담겠다.
> InetSocketAddress(서브클래스)

3) 서버와의 연결을 시도
> socket.connect(socketAddress, 3000);
연결 : connect // 3000 = 타임아웃

local&host loop back

Ap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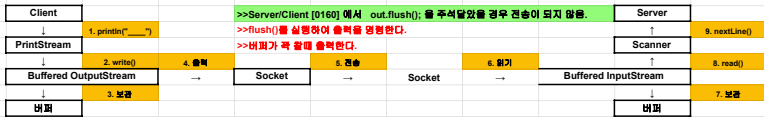
Os

NIC

Hub

GateWay

*비회 사용시 입출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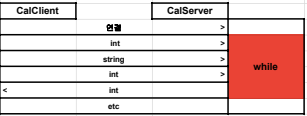
*TC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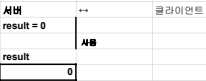
- 보내는이의 주소
- 받는이의 주소
- 데이터 길이
- 체크섬
- etc

TCP는 손실될 가능성이 있음.

*stateful 1



*stateful 2 : 서버측에 계산결과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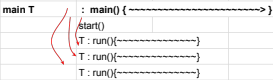


- >클라이언트 연결이 유지하는 동안에는 result 변수도 유지된다.
- > 즉, Client와의 작업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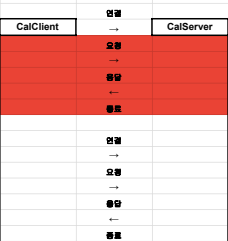
*stateful 3 : 스레드



클라이언트 정보를 유지 가능 : stateful
별도의 클라이언트 기능을 실행 가능 : thread



*Stateless 1



한번 요청에 한번 응답

*Stateless 2 : 클라이언트 구분하기



*Stateless 2 : 클라이언트 구분하기

Collaborator Diagram = Sequence Diag = 시간 흐름에 따라 실행 과정을 표현기에 적합



4. 계산 수행

참고로그래밍에서 세션id(session id)라고 부른다
3. client id 생성 = 100

key	value
client id	계산결과
	100

